

남자 1승·여자 1골 목표...수구, 좌절이란 없다

A조 조별리그 1차전 강호 그리스에 23점차 패배
3라운드에 첫 골·종료 1분전 선방 관중들 아낌없는 환호
첫 골 김문수 "반드시 1승 할 것"...내일 세르비아와 2차전



남자 수구

"세계의 벽이 높은 줄은 알았지만 막상 붙어보니 생각보다 차이가 더 컸습니다. 순위 결정전에서는 목표인 1승을 거두고 싶습니다."

15일 광주시 광산구 남부대 수구경기장에서 펼쳐진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수구 A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한국 남자 수구대표팀이 그리스에 3-26으로 완패했다. 수구대표팀이 맞붙은 그리스는 2017 부다페스트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4위, 2015 카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2005 몬트리올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는 3위를 차지한 수구 강국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1986 서울 아시안게임과 1990 베이징 아시안게임에서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땀었지만 이후 점차 아시아 권 무대에서조차 경쟁력을 잃어가며 메달권에 진입하지 못했다. 지난해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에서는 5위에 머물렀다. 이번 대회도 개최국 자격으로 출전했다.

한국은 경기 시작 1분 10초만에 첫 골을 내렸다. 한국도 1라운드 4분 9초 기다리던 첫 골을 넣었지만 공격자 파울로 득점이 무산됐다.

그리스는 수구 강호답게 노련하게 경기를 운영했다. 좌, 우, 중앙 가리 않고 공격을 이어갔다. 찬스에는 로빙수 등으로 우리나라 골키퍼의 타이밍을 빼앗으며 점수를 벌려 나갔다.

한국도 여러 번 역수 기회를 잡았지만 번번이 그리스 수비벽에 막히거나 공격자 파울로 득점 기회가 잇따라 무산됐다. 이렇게 2라운드까지 14점을 내주며 0-14로 끌려다녔다.

기다리던 한국의 첫 골이 마침내 3라운드에서 터졌다.

3라운드 3분42초 우측 측면에서 공을 잡은 김문수(경기도청)가 슈팅으로 그리스의 골망을 흔들었다. 스코어는 1-15가 됐다. 김문수의 골은 한국 대표팀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첫 득점이었다.

흐름을 탄 한국은 4라운드 들어 공격을



15일 오전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경기장에서 열린 수구 남자부 조별리그 1차전 대한민국 대 그리스 경기에서 한국의 수비수들이 그리스 선수의 슈트를 블로킹하고 있다. /특별취재단=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이어갔다. 경기 종료 4분여를 남겨두고 경기장은 후끈 달아 올랐다. 4라운드 3분 54초 김동현(경기도청)이 그리스 센터백을 뚫고 골에 성공했다. 46초 뒤에도 결정적 찬스를 잡은 김동현이 놓치지 않고 득점에 성공했다. 관중들은 김동현의 이름을 연호했다.

승부는 사실상 결정 난 상태였지만 한국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경기 종료 1분 전 골키퍼 이진우는 상대의 페널티스로 막아내며 관중들의 탄성을 끌어냈다. 그리스도 맹공을 퍼부었지만, 이진우의 잇따른 선방에 막혀 더 많은 골을 터뜨리지 못했다.

이진우는 이날 상대의 36개 유효슈팅 중 페널티스로 1차례 방어 등 결정적 슈팅 10

개를 막아냈다. 세이브율은 28%에 불과했지만 이진우의 선방은 눈부셨다.

첫 골을 성공시킨 김문수는 "유럽 강호들과 붙는 예선전에서는 승리가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순위 결정전에서 아시아 국가와 붙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때 1승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경기에서 3골을 넣었으니 자신감을 가

지고 앞으로 6골, 9골을 넣겠다. 이번 대회에서 꼭 1승을 따낼 테니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17일 오후 8시 30분 세르비아와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른다. 세르비아는 2016 리우 올림픽과 2015 카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한 바 있다.

/특별취재단=김현호 기자 khh@

0대 64 패...그래도 '女 수구' 응원해야 하는 이유

수영협, 재정 악화·인사 비리로 2년간 수장 없이 표류
북한과 단일팀 결성하려다 한달반 전에야 대표팀 구성

"잠막하다.", "이 정도 팀이라면 차라리 출전하지 말지.", "한 골을 넣는게 목표라니"

지난 14일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구 종목에 첫 출전한 대한민국 여자 수구대표팀이 헝가리에 0-64로 완패하자 팬들의 심정이 엇갈리고 있다.

대표팀 코치는 진만근, 주장이자 골키퍼가 오희지(이상 전남수영연맹)이었기 때문에 광주·전남 지역민의 마음은 더 아팠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는 '남북 단일팀'이 추진됐다. 대회 흥행과 스포츠를 통한 남북 교류 증진을 동시에 잡겠다는 의도였다.

유일한 팀 종목인 수구, 그중에서도 한국에 전문 선수가 없는 여자 수구가 단일팀 후보로 떠올랐다.

개막은 계속 가까워졌지만, 북측의 대답은 없었다. 여자 수구대표팀 구성도 계속 미뤄졌다.

결국 지난 5월, 대한수영연맹은 급히 선발전을 통해 여자 수구대표팀을 꾸렸다. 첫 경기까지 남은 시간은 한 달 반. 태어나서 처음 수구 공을 잡아보는 선수들에게는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꾸려진 한국의 '사상 첫 여자 수구대표팀'은 14일 헝가리와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0-64로 졌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 수구 사상 최다 골차 패배였다.

'수구 경력 한 달 반'인 선수들과 '전통의 수구 강국' 사이의 대결이었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광주시가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권을 확보한 것은 2013년 7월이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6년 전이다.

하지만, 여자 수구 대표팀을 만들고, 계획을 세워 육성해야 할 대한수영연맹은 그동안 제구실을 못 했다.

재정 악화와 집행부 인사 비리 행위로 2016년 3월 대한체육회 관리단체로 지정된 뒤 2년여 동안 수장 없이 표류하다가 지난해 5월에 가서야 새 회장을 뽑았다.

이후에도 대표팀 결성은 바로 이뤄지지 않았다. 북측의 합류를 기다리는 동안 시간은 계속 흘렀고 대회 두 달을 앞두고서야 급히 선수들이 선발됐다.

여자 수구 대표팀 흥인기 코치는 대회를 앞두고 "짧은 기간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훈련했다"며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계속 든다"고 했다.

0-64의 대패는 부족한 실력 때문이다. 실력이 부족한 것은 부족했던 시간 때문이었다. 시간이 부족했던 것은 선수들의 탓이 아니다. 그들에게 비난이 아닌 격려가 필요한 이유다.

/특별취재단=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달콤한 휴식처' 남부대 마켓스트리트 잔디광장

푸드트럭 음식 '외신' 호평
매일 오후 다양한 공연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주경기장인 남부대 시립 국제수영장 주변 마켓스트리트 잔디광장이 선수단과 관광객, 시민들의 휴식처로 주목받고 있다.

잔디광장은 편히 누워 쉴 수 있는 넓은 잔디밭과 햇빛을 피할 수 있는 파라솔과 의자, 푸드트럭, 공연 무대 등 작은 휴식처로 구성돼 있다.

이곳에는 치킨, 닭꼬치, 스테이크, 핫도그 등 다양한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이 선수단과 관광객의 오감을 유혹한다. 맛도 좋다는 평가가 외국선수단과 국외 언론관계자로부터 잇따르고 있다고 수영대회 조직위는 귀띔했다.

캐나다 공연방송 CBC의 카메라맨 미셸 씨는 "모든 음식이 맛있다. 특히 닭꼬치와 새우 등은 즉석요리인데도 맛이 아주 훌륭하다"며 "마켓스트리트 분위기가 휴식을



15일 오후 주경기장인 남부대 잔디광장에서 선수단과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광주세계수영대회 조직위 제공>

즐기는 사람도 있고, 활기 넘치는 공연도 있는 등 분위기를 즐기는 분위기가 인상적이어서 경기장 주변 뉴스 스케치 영상을 촬영했다"고 말했다.

잔디광장에 설치된 무대에서 매일 오후 5-7시 국내외 공연단이 벌이는 다양한 공

연도 볼거리다. 지난 14일 오후 공연에서는 공연팀 조이폴의 흥겨운 타악공연과 일본 요코하마 예술단의 댄스, 중국 취안저우의 인형극 등 다양한 퍼포먼스가 선수단과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별취재단=김현호 기자 khh@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부동산 추천 물건

- 토지**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계획관리지역) 토지 : 3834㎡(1159.78평)
매매가 2억9천만원 강천산휴게소,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인근, 투자기치 좋음.
- 토지** 광주 동구 지산동 (자연녹지지역) 토지 : 1948㎡(589.27평), 건물 : 255.61㎡(77.32평)
매매가 26억5천만원 지산유원지 카페거리 조정가능.
-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 55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 : 1686.5㎡(510평) 건물 : 3000.8㎡(907.74평)
지상2층 매매가 : 45억 아파트밀집지역, 중심상권.
- 건물**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32억 현 사우나 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병원** 광주 광산구 삼거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인근.
- 병원**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 36억 전시광고효과 좋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 의료시설** 함평군 월야면 월거리 토지 : 11139㎡(3369.5평) 건물 : 5530.56㎡(1612.5평)
감정가 : 40억3천만원 최저가 : (45%) 18억7천8십만원
- 의료시설** 광주 북구 신안동 토지 : 645㎡(195.1평) 건물 : 1296.18㎡(392.1평)
지하1층 지상6층 감정가 : 14억5천3백만원 최저가 : (56%) 8억1천4백만원
- 공장** 곡성군 삼기면 경악리 토지 : 88181㎡(26674.8평), 건물 : 15264.64㎡(4617.6평)
지하1층지상3층 감정가 : 124억3천8백7십만원 최저가 : (29%) 35억6천6백5십만원
- 공장** 해남군 화산면 관동리 토지 : 3769㎡(1137.1평) 건물 : 2040.5㎡(617.3평)
지상1층 감정가 : 14억8천8백만원 최저가 : (45%) 6억6천6백8십만원
- 창고** 광주 남구 서동 토지 : 396㎡(119.8평) 건물 : 239.15㎡(72.3평)
감정가 : 5억8백7십만원 최저가 : (70%) 3억5천6백만원
- 근린시설** 광주 서구 풍암동 1114번지 토지 : 1500.2㎡(453.811평) 건물 : 6759.99㎡(2044.897평)
감정가 : 65억2천3백5십만원 최저가 : 65억2천3백5십만원
- 숙박시설** 화순군 도곡면 원화리 토지 : 2042.2㎡(617.8평) 건물 : 2735.49㎡(827.5평)
지하1층지상5층 감정가 : 24억4천5백8십만원 최저가 : (36%) 8억7천6백6십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